

倫理問題의 새 吟味

現世代 휴머니즘의 本質 (1)

白鐵

月前에 決定한 論文의 題中 未完에 關한 部分을 여기서 完了하려고 한다. 휴-맨이즘[휴머니즘] 問題에 잇서는 리아리즘[리얼리즘]의 實踐으로써 그 可能을 論하는 評者도 登場한 듯하나, 그 實踐問題에 對하여 나로서는 別로 苟且한 干涉을 加하지 안코 그 功績을 깨끗이 當者에게 돌니려고 하거니와, 나는 내 流대로 自己가 오직 올은 길이라고 信賴하는 곳에서 倫理의 問題를 揭하여 휴-맨이즘을 우리 文學의 具體的 問題로서 안어 드리려고 한다. 적어도 휴-맨이즘을 文學의 重要한 側面에 定着시키려고 한다.

萬一 휴-맨이즘을 좀 더 우리들의 感情에 드러가는 文句로 代置하려고 할 때에 朴英熙氏와 가티 그것을 人道主義라는 文句로써 譯述한 것이 現代 휴-맨이즘이 숨蓄하고 잇는 內容에 比하여 그 意를 汲盡하지 못한 恨이 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現代 휴-맨이즘의 가장 重大한 內容을 代言한 것임에는 틀 님이 업는 줄 안다. 그것은 西歐의 文學과 比較하여 한번도 휴-맨이즘의 洗禮를 바더 보지 못한 우리 文學에서는 휴-맨이즘이 十九世紀的 意味로서의 人道主義的인 內容을 同伴하는 것이라는 特殊 事情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, 全般的으로 西歐的인 것을 包含하여 휴-맨이즘의 意義를 살피더라도 本來 그 發生이 今日의 가장 非人道的인 待遇에 對하여 抗議하는 人道主義的 反抗이요 運動인즉, 쓰는 場所에 따라 人道主義의 內容을 가지고 足히 휴-맨이즘의 內容을 規定할 수 잇는 同時에 또한 여기서 휴-맨이즘의 文學은 正面으로 하나의 倫理問題에 途着한다고 생각한다. 이것은 휴-맨이즘을 人道主義로 譯하고 그 中에서 便宜하게 人道的 側面을 取하여 任意로 倫理世界를 設定한 것이 아니라, 本來에 잇서 휴-맨이즘은 歷史적으로 發生하는 것이 大概 當時에 現行하고 잇는 社會的, 道德的 法則에 對한 反對의 要求로서 表現된다—는 것을 생각하고 잇스며, 그와 同時에 直接으로 今日의 文學과 倫理問題를 볼 때에 그 倫理란 以上에 말한 그 휴-맨이즘을 發生시킨 非人道的인 現實에 對한 道德的 決意를 除하고 存在할 곳이 업다고 생각하기 때문이

다. 勿論 그 意味의 倫理란 純粹한 文學的 倫理에 比하여 穢 不純한 俗된 것인지 모르나, 不純한 가운데서 그것은 現代文學 대하여 가장 重大하고 豐富한 倫理를 呈示하고 잇스며, 그 意味로서 直接으로 휴-맨이즘 文學에 對하여 볼 때에 倫理는 文學의 一側面이란 것이 아니라, 그 全體가 하나의 倫理의 文學이란 곳에 現代 휴-맨이즘의 文學的 側面이 있다고 보혀진다. 그리하여 위선 우리들이 휴-맨이즘의 文學을 迫論하여 첫재로 途着한 곳이 이 倫理의 世界라고 본다.

여기서 萬一 그와 가티 倫理의 世界를 決定한 것이 너무 困難한 길을 避한 態度라면, 이번은 他面에서 또한 휴-맨이즘의 倫理世界를 決定할 수 있다. 日前 知性問題를 論하는 論文 中에서 나는 今日 知識人間의 휴-맨이즘은 近代知性の 破産에 對한 再建의 意味로서 그 表現을 보고져 하얏다. 現代 知識人間의 知性化하는 方向과 生의 意慾이 背離되고, 理性과 肉體的인 感情이 遊離되며 教養과 生命的인 發達이 分離된 것에 對하여 現代의 人間은 하나의 조고마한 謀叛을 敢行한 것이었다. 그 謀叛은 同時에 分解된 것에 對한 再建을 意味한 것이었다.

그러면 그 知性 再建의 世紀的인 課題는 우리들 知識人, 具體的으로는 文學者 個人의 責任으로서는 어떠한 그 所任을 分擔해야 할 것인가?